

「칸트」로부터 「휴-口」에 이르기까지 因果問題의發展(續)

朴東一

三, 習慣과信念

吾人은只今이習慣과信念에就하여論述하라하는데이것이야말로 一 因果關係에對한휴-口의必然을論述함에不外한것이다. 即吾人은 이習慣과信念을詳論하는데서 휴-口의思考한因果必然性에對한思想를窺知할수가있다. 그래吾人이只今時間空間中에서遠隔하여存在하는 어떤特別한事象에就하여 現在의對象으로붙어 推理할때에는吾人의心中에는 何物이存在하여야잇는가. 吾人에게는 그러한特別한原因은 그러한特別한結果를갖지않으면 안된다는事實이浮來한다. 그러하여因果理의格率은말하면 人間에對하여서 自然的임으로써 如何한因果關係의法則이나 모다想像을通하여 吾人の經驗上에活動하는原則의成果에不過하는것이다. 그러면種種相異한事物間에在한一般的關係는 어떠한모양으로吾人의心中에存在하는가. 다시나아가말하면 휴-口이自然現象에就하여觀察한結合은偶然的임으로써휴-口은一의現象을他의現象의出現에就하여推理하는 아무런根據도發見치못한것이다. 그러나휴-口은매우오래스동안 人世를經歷하여類似한事物또過程은常恒的으로 相互結合의狀態로다가날아나는것을認識하였다. 그러면이經驗으로붙어生起하는것은무엇일가. 오히려휴-口은 이結合根據에對한表象即一現象이他現象을呼起하는 어떤秘密의힘을感하는데 휴-口은이推理에際하여 何等最初에出現한現象에對한回想없이 第二의現象의出現을推한다. 이러한同一한境遇의反復은 무엇客觀의認識은變更식하지아니하나知覺하는主觀中에在하여는 무엇인가變化하고 그리하여事物에對한解釋을變換식하는것이다. 그와같이어떤傾向이主觀에生起고 어떤原理가客觀에在하여 生生히作用하는作用은무엇일가. 此原理는習慣或은練習이다. 많아서吾人은此를到處에서發見하는것이여서 經驗으로붙어의 모든推論은 結局에習慣의結果요理性의作用은아닌것이다. 그러므로휴-口은 「吾人은두가지事物-例하면熱과火焰또는重量과堅

性-의常恒的結合을目見한後에말하기를 吾人人生은 다만習慣에依하여서만一現象으로붙어 他現象을知覺하도록決定되어있다」(以下書名及頁數略)라고말하였다.

많아서생각해보면 習慣은吾人生活에對한大案內者다. 그래서또吾人の第二天性이여서 거의第一次的의「힘」인同時에連하여는 吾人에게本源的으로뿌리백혀진本能과가티活動하는것이다. 그럼으로 모든第二次的으로獲得하여진本能은習慣으로붙어出發하는것이다. 依하여또휴-口은「그래서習慣은人生生活의大案內者이다.....習慣의影響이없으면吾人は直接으로記憶이나 感覺에날아나는事實以外的모든事實은 全然盲目일것이다」라고말하였다. 그리해서 이習慣은一切의世界事象에對한知識을 吾人에게授與하는推理活動의 참말로의舞臺요根據다그렇기휴-口은客觀의어떤現象으로붙어 他現象으로推理하는必然性を習慣에還元하였음으로 휴-口은吾人の經驗推理를理性或은認識에置礎하는대신에生活에아니自然其物에置礎하였다. 좇아서吾人の思想過程에在한事物의成行에對한順應은말하자면 二物件사이에在한참으로의豫定調和다. 그래서휴-口은外界의經驗 或은自然으로붙어의 모든原理에對하여 이習慣을內的經驗으로붙어의 原理로認定하였다. 內的經驗의原理로本以上 그것은結局人生의心其物의內的性質에依하여 形成되는것이다. 그래서휴-口은또다음과같이말하였다. 即「모든이러한作用은理性或은 思想及悟性の過性の過程이産出할수도없는 現出할수도없는 自然의本能의一種이다라고」如斯히吾人は因果推理의如斯한狀態에就하여非常히 다른特殊狀態를感認하나 何等놀랄것은없다. 結局吾人は 이狀態를信하는것이다. 그래얼마동안이信念에對한휴-口의解明을論述하려한다.

信念은한自然한衝動인데 휴-口은이衝動의作用信念或은確信을 慈善을感受할時的感謝의念과 侮辱을遭遇할時的憎惡의感에다가比較하나 말할것없이諸般如此한作用은 自然의本能의一種으로붙어出來하는것이여서 如何한推論도 또如何한思想過程도此作用을喚起 或은妨害할수는없는것이다. 只今信念이대체무엇을意味하는가를 다만日常生活에就하여 思索할뿐으로도 淸明瞭하게알수가있다. 그래信念의作用은 想像의作用보다도 吾人에對하여훨신眞實的이다. 밧구어말하면 信念은吾人思惟에在하여서 가장重要性이잇고 吾人生活上行爲에影響을波及하고 吾人の思惟及動作에서 맞나는何物보다도 더욱큰重要性을持在한듯이생각된다. 哲學者들은 그러한信念을定義하는데 다만若干의現在印象에關係한事物의觀念으로붙어하나 그러나아무리分析을많이할지라도 吾人は觀念에突擊하여서信念을作出하는 判명한印象을知得할수는없다. 그래서휴-口은個個의存在에對한印象은 以前에吾人이信하는어떤 事物의觀念을伴有치아니한事實을 밝히려고하는것이다. 그우에또휴-口은信念이因果推理의成果인觀念에만

關係하는特徵잇는感情이라고말한다. 卽이信念은 한낫의內的感情속에存在하는 것이여서 이것을갖는가 갖지안는가는 吾人의恣意的물건이아니요 吾人이支配할수없는原因과法則으로붙어生起는것이다. 甞어서만일吾人이思考하고觀察할境遇에 아무것이나特徵잇는것이發見될것같으면 吾人은卽時信念에在한吾人感情의特徵잇는性質을바로 吾人推理의本性으로돌려보내는것이다. 그렇기하여信念或은確信의強度는信念의「힘」의全體의結果다. 그래서信念은時間及空間에在한印象의接觸에依하여 表象으로變하고 甞어서全過去經驗에在한同一한繼起의反復累續으로붙어生起하는習慣의「힘」으로變하는것이다.

여기에이르러 吾人이直接으로現在하는 어떤事物을볼때 일로붙어어떤特殊事物을思考할境遇에는 언제던지吾人에게는 想像上에서活動하는習慣이 作用하는것이다. 휴-口의言을 二三引用하여보려한다. 卽「習慣은吾人이反省할時間을 갖기前에作用한다」또「思想은恒常아무리한選擇或은躊躇없이 一觀念으로붙어 他觀念으로通過하도록 그래고나아가서는 特別한印象으로붙어 特別한觀念으로通過하도록決定되어있다」또저「吾人의想像은저反省에先行하고 또反省에依하여妨害되어지지안는自然的傾向에말미암아 一로붙어他로通過한다」라고. 그래서想像의此衝動은 그렇기도自然的이고그렇기도直接的임으로그行動은 吾人思惟中の本源의觀念卽本源의印象까지交涉하는것이다. 그때吾人이感覺과記憶을通하여 認識한것이많은印象을 吾人에게준다. 實際로如斯한 推理의結論的證명의結論보다도強한것이고 또吾人의合意하는것이다. 이렇기觀來하면吾人의素朴의信念은 마음의感情이나感傷과같이自發적으로 生來하는것이고 甞어서此信念은 또한此信念을作出하는마음에關하여보면 本能的인自然關係로붙어發出하는것이다. 그럼으로물은信念은必然의이다. 그理由로하는바는 實로想像의推理의過程은自然히決定됨으로써다. 휴-口의言에「그럼으로信念은單只 어떤感情 或은感傷에存在한다고結論할수가잇고 또는意思에附依하지는안으나그러나 꼭吾人이自意대로할수없는 一定한原因과原則으로붙어 生起치아니하면아니되는 어떤物件에存在하다고結論할수가잇다」라고말하였다. 이래서일로붙어信念이무엇인가를 吾人은알수가잇다.

於是乎信念 또는信念의源泉에對한 이研究는必然性の觀念起源에近接케하는 것같이되인다. 因果性은人間悟性에對하여는 한自然的關係임으로 이러한自然的關係에在한事物을思惟하는 吾人의態度는必然性和同意인言語卽決定性 다시말하면內的強迫의 어떤傾向을齎來한다. 그럼으로휴-口은吾人의全因果關係에 있어서 識別하는必然性은 吾人의過去經驗의習慣的結合을通하여 一物을他物로붙어推理하는吾人自身の 心的決定의感情에不外하다고생각한것이다. 다시나아가말하면 이心的決定은한印象인데 휴-口은如斯한印象은感覺印象이아니고

反省印象이라고말하였다. 如斯한感情作用은自然的이라人間意志와는 全然獨立의인것인데 말하자면吾人思惟作用에在하여야는 처음에는連結의必然性처럼乃終에는 信念처럼作用하는것이다. 贅어서또心은外界에向하여 自身을擴張하라하는 큰傾向이잇는지라 이런까답으로 吾人은事物에在한必然的結合力을 注視하는傾向이있다. 吾人은變化를産出하는이力또事物과 事變間의結紐을 判然하게言表하기는어렵다. 그렇다할지라도 吾人은自然을因果의秩序로成立되었다고생각하는것일뿐더러 實로그렇기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 即因果關係는 一自然關係요吾等人間의本性の決定性이다. 오히려더一言을加하여두라는것은力(Force)이라고일으는것이다. 非常히힘있게 이力을휴-口은論하여 거의必然성과同樣으로보는것인데 그러면그力이란 무엇인가를簡言하면 力은그自身の本性은吾人에게알려지지아니한어떤物件이다. 그리하여이力이라는概念은멀리뎌케-르트學徒와偶因論者인말부란쉬로붙어 由來한것이다. 그래서휴-口은悟心論에서 結果의程度或은分量이定해지고 또決定되는어떤事物의알려지지아니한狀態를吾人이思考할때에는 그不可知的的狀態를力이라고불은다는 意味를述한것을吾人은보는것이다.

上來의論述을總觀하면 因果連結에在한必然性은習慣의結果이다. 그런까답으로 이必然性은吾人の因果推理의原理가아니고 吾人の推理의結果다. 그렇기吾人은自然의過程에在하여처음으로붙어必然性을認識하지안는것임으로吾人은그過程에在한因果的結合을推理한다. 何故인가하면 吾人은常恒的으로或은습慣的으로 一過程에서 他過程을推理하는동안은 이過程은因的으로換言하면 必然的으로結合되어잇는것처럼되임으로써다. 그럼으로吾人이過去經驗으로붙어一切의未來에 그리하여 現實的經驗으로붙어 可能的經驗에推理하는것을 正信하는必然性은 正히習慣의事爲요 또吾人の表象過程의 事物過程에의順應의事變이다. 由此觀之하면휴-口은다만此因果關係에在한 心理的主觀的의必然性만을知悉하고 다만特殊的理果律만을論述하였음으로써 先驗的必然성과 또一般的因果律의論證은 칸트의解決을기다리지안으면안된다.